

다음 아고라
미네르바 글 모음
4번째

<http://cafe.daum.net/iomine>

미네르바 글 모음 카페

소 개 하 기

이 책은 '다음 아고라 경제방'에서 '미네르바님'이 쓰신 글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1. 현재의 경제 상황 2. 앞으로의 경제전망, 3.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글입니다.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쓴 글들은 1에, 8월 중순부터 9월까지 쓴 글들을 2, 10월에 쓴 글들은 3에, 그리고 11월부터 1월5일자까지의 글들은 4에 담았습니다.

미네르바 님의 글을 인터넷으로 보고자 하시면, '미네르바 글 모음 카페 <http://cafe.daum.net/iomine>'에 가입하시면 전문으로 보실 수 있고, 이에 대한 인쇄용 PDF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가능한 많은 지인들에게 이 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올 미래를 준비하며, 억울하게 당하지 말고 슬기롭게 준비합시다!!

이 글을 쓴 미네르바님에게 감사드립니다.

PS. 그리고 개인적으로.. 당신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이 글을 보실지 모르지만.. 당신이 지금까지 올린 글들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진흙속 아귀다툼에서 해쳐나왔고, 많은 분들이 수렁에 빠지지 않았으며, 많은 분들이 미래를 대비하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전세계를 구한 것이다' -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서..

미네르바 글 모음 카페 주인장 - 일심 -

미네르바 글 모음 4 목 록 표

01. 지금 이런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01쪽
02. 이제 병원 간다. 04쪽
03. 이제 마음 속에서 한국을 지운다. 06쪽
04. 난 감정 배설구 노릇이나 하라고 한 적 없다. 13쪽
05. "과연 나는 누구인가"... 17쪽
06. "침묵은 금이다 " 라는걸 잊지 마십시오. 22쪽
07. 이제 조만간 대대적인 애국주의 광풍이 몰아칠 것이다. 25쪽
08. 이 나라는 확실히 미쳤다. 진짜 제 정신이 아니구나! 32쪽
09. 잘 봤나?. 34쪽
10.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 - 1보 35쪽
11. 한국 경제 성장률에 따른 스펙트럼 개요 36쪽
12. 존경하는 강만수 장관님께 44쪽
13.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헌건데 47쪽
14. 속 상하다.... 그리고 사과 드린다. 49쪽
15. 마지막에 기댈 것은 결국 희망입니다. 51쪽

01. 지금 이런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 리얼리티 상황은?..

은행 창구에 중소기업들 찾아오면 벌어지는 사태는 말로는 중소기업 유동성을 지원한다고 떠들면서 적금 꺾기, 추가 담보 설정에 보험 끼워 팔기 등등.....

회사 대표자 부모님 부동산 명의 부동산 매도 사전 약정, 대표 이사 부모 명의 부동산 추가 담보 설정. 토지 보상금 금액 요구, 매달 적금 가입 후 제2 금융권 대출 후 키코 손실 상환 후 재 담보 설정.

보험사를 계열사로 둔 경우 보험 꺾기.. 화재 보험 + 시설 보험 + 종업원 퇴직 보험 + 상해 보험 등등등...

이건 대출 한번 받으러 가서 보험 꺾기로 보험 가입을 4~5가지.. 자금 부담이 큰 장기 보험 가입 강요..

심지어는 기존 보험 해약 후 재가입 압력. 은행들이 방카슈랑스 업무까지 대행 하는 통에 이제는 보험 꺾기로 수수료 장사까지 한 몫 거들기.

오늘 이명박 각하가 대기업 + 은행이 중소기업 살리라고 하시는데..

이건 현장에서 보기에 한 마디로 웃기는 소리지... 탁상공론... 진짜 신사적으로 말해서..

왜 은행 놈들이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정부 프로그램을 이런식으로 이용해 먹으면서 채권 장사나 쳐 하는가하면 신용 보증 기금 + 기술 보증 기금 = 40% 보증이라는 안정 장치가 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중소기업이 파산을 해도 시중 은행의 경우는 60%만 마이너스...

그래서 현장에서 중소기업 애들은 은행 창구 가서 은행 애들이 적금 꺾기나 보험 꺾기 하라고 들이밀면서 피 빨아 먹고 있는데..

방송에서는 대통령이 나와서 대기업하고 은행 보고 중소기업 구하라고 하면..

솔직히 대표 이사 명패 집어 던지지... 이러니까 대통령이 경제를 모른다는 소리를 하는거야..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현장은 쥐뿔도 몰라..

통계 숫자 들이대면서 뭘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현장에서는 이런식으로

역이용을 해..

왜 한국에서 금융 규제 풀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래 버리면 아마 3~4년 안에 다 해쳐 먹는다에 난 올인 한다.

개성 공단에서 환율 1300원이 되면 인건비 부담이 42%가 올라간다..

이젠... 정신 좀 차리자.. 응?... 이려고도 금융 선진국 소리가 나오니???... 나가 보면 애들이 다 비웃어.. 이런건..

정부 유동성 지원에 올라타서 회사 사장 부모 부동산까지 아예 골수 까지 다 파먹으려고 덤비는 애들이 한국 은행놈들인데 참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상극 중에 상극이라는 소리가 뭔지도 모르는 건지 정부 주도로 개입을 해야 당연한 걸 은행 주도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 하라는건 외국 애들이 봐도 이젠 동네 코메디 하나고 떠들 정도면 말 다한 수준인 거지.

오죽... 하면 양키 놈들이 그거 보고 그 자리에서 비웃냐. 참 나 원..

나. 같은. 노인.네.나 잡.아.죽.칠. 생각하지 말고... 은행이나 내일 가서 이런 거나 제대로 감독부터 해라.

지금 개판 5분 전이니까....

이게 뭘 상관이냐고?... 이런식으로 조지다가 회사 다 박살나면..

이제는 그나마 있는 고용이라도 지켜야지 애기들 분유라도 사 먹이고 애들 이라도 키우고 가스 요금도 올린다는데 보일러 틀고 살지.

그럼.... 회사들 다 작살낼래?...

한 마디로 마을에 독 사과를 파는 사과 장수 할머니가 찾아 왔어... 근데 백설 공주네 집에 가서 사과 무료 세일 이벤트니까 받아 가라면서 주는거야..

순진한 백설 공주는 사과를 쳐 먹었지.. 그 후에는 독 사과를 먹고 전신 마비가 되 버렸단다..

그 다음에 노파는 가면을 벗고 백설 공주 집에 들어가 백설 공주 위에 올라타고 웃으면서 즐겼단다.

이런 슬픈 성인 동화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지....ㅍㅍㅍㅍ.. 어때?... 이젠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지?..

이런거만 건드리자는게 아니라... 니들 밥벌이 하는 개개인별 회사 문제니까 하는 말이야..

회사 하나 망해서 현금 묶이면... 그 땀... 다른 회사라고 무사할 줄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가한 소리나 할 때가 아니란 거지.....

-늪은이가-

이 나라는... 지금 밑바닥부터 빨대 뽑아서 빨아 먹으려고 달려드는 놈들 투성이야..

지금은 밤에 밤잠 안자고 빨리 공부해서 눈 뜨고 살아남을 생각을 해야지.

지금은 은행에서 코 베가는 세상이다..

오늘도 이 저녁에 부모님 부동산 추가 담보 요구 하는 은행 마피아 애들 등쌀에 회사는 끝없는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간다.

그리고 참고로 난 구속 수사 말고 시청 앞에서 화형을 시켜 줘라... 기왕 해 줄꺼면..

어차피 그거나 그거나..

불로 일으킨 인생.. 불로 마감 하련다... 무에서 무로... 재로..

좋잖아???.....

<2008년11월13일>

02. 이제 병원 간다.

잡혀 가기는 뭘 잡혀 가니.

이젠 내일 병원 가서 요양 치료나 받으로 가는데. 이젠 늙어서 요양이나 가서 눈 감는거지.

요양전문 병원.

그리고 C.H.S는 내 학교 선배야.. 오늘 장례식이라서 술 마시고 와서 한잔 더 마시는거지.

이젠 내일이면 못 마시는데 오늘이라도 피크 찍고 마셔 봐야지. 이젠 끝인데.

정말 징그럽다. 요즘은 병원 감옥도 있다니?....

막말 해서 미안하다. 난 원래 못 된 늙은이라서 그래. 그냥 이제 죽을 날 앞두고 회개 했다고 셈 치렴.

우리 동네 미자가 선물이라고 액자 하나 주더라.. 끝까지 눈치는 눈 찢고 봐도 없는 애가. 차라리 집안에 숨겨 둔 양주나 한 병 줄 것이지. 아님 소주나 한 병 사오든가.

욕지꺼리로 마음의 상처 입은 세심한 어린이들에게.. 진짜.. 미안해.

이 할아범 이제 병원 가니까 내일 하드나 하나 사 먹으렴... XX바 라고 ..

그리고 빨리 공부해서 각성 하는거 잊지 말고.

유린당하지 말랬지?.. 정말 무서운 세상이야. 사람이 육체적 유린만 유린이 아냐.

더 무서운건 경제적 유린이지. 니 자식 새/끼들 키워야 할꺼 아녀.

그 동안 죄를 너무 많이 저서 그래.. 이젠 회개 해야지.

어릴 때 머슴살이 할 때부터 너무 몸을 막 굴려서 그런 거지. 그러면 늙어서 고생이거든.

그래도 머슴 살이까지 하다가 술 빨면서 인터넷이란것 까지 써 보고 디질날 앞두고 병원가기 전날까지 이런거 써 보니... 참 잘 살기는 잘 살았구나..

"주여... 이제 저의 죄를 사하소서... 이제 이 어린양은 주의 품으로... 아멘..."

내가 이래 봐도 예전 머슴살 때 신자였단다.. 이젠 신의 품으로 갈 때 되면 가는 거겠지...

다 사는게 그런거 아니겠니?..

내가 뭘 얘기 했는가 보다는 여태까지 말한 어떤 정신이나 마음가짐으로 살아 가는게 중요한지가 더 핵심이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잊지 말고 유린당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사는게 중요하다는걸 잊지 마렴.

알겠니?.

<2008년11월13일>

03. 이제 마음 속에서 한국을 지운다.

오늘 하루 멀어지는 걸 잘 봤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 속에서 "한국" 을 지운다.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각인 된 "조국"이라는 말과 "한민족"이라는 이름하에 포장된 애국심을 밑바탕에 두고 이런 공동체 의식 속에서 살아 온 것 자체가 얼마나 철저한 가증스런 기만행위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뼈저리게 새삼 느끼고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는 물론 리사이클에 따라 호황이 있으면 불황도 오고 순환 반복 주기에 따라 극복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젠 사회 계급 체제가 이런식으로 더욱더 견고해 지고 이런 사회 구조적인 매트릭스 속에서 천민들 절대 다수가 사육 당하고 있다는걸 깨달아 가며.

이런 공동체 의식이라는 걸로 묶여진 사회 매트릭스 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집단 이기적이고 가증스런 피라미드 계급 구조였다는 걸 깨닫고 여태까지 "애국"과 "조국"이라는 이름하에 포장되어 온 그 모든 것들이 환상이라는걸 느끼면서 마음 속에서 깨져 버렸을 때.

그 후에는 아무도 한국 이라는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전해서 싸우려고 총을 들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

이제 그런 공동체 의식도 오늘부로 완전히 없어졌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매트릭스에서 자기 자신이 사육 당하고 있다는걸 깨닫고 일반 개개인들이 느끼는 그런 비참함이라는건 사회적 비용 가치로 환산이 불가능 하다는것이겠지.

왜냐면 여태까지 믿고 따라 왔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위선적인 거짓들이었다는걸 다시 한번 각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니 말이다.

내가 예전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외국어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시험용 외국어가 아닌 회화형 생활 외국어가 왜 필요한지.

이젠 각자 심각하게 한국에서의 매트릭스 체제 하에서 사육 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의 재정립이라는걸 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본다.

"국가가 침묵을 명령 했다. "

그럼 침묵해야지.

이건 특정인에 대한 명예 훼손에 해당 되지 않으니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다.

한국에서 경제 예측을 하는 것도 불법 사유라니 입 닥치고 사는 수밖에.. 이제 약 먹으러 가야지.

여기 병원이거든.

국가와 조국이라는것은 과연 무엇인가. 나도 최전방에서 소총들고 별이 뜬 밤하늘을 새벽에 바라보면서 국가에 속한 나 자신과 내가 지켜야 할 공동체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 후 이 나라가 보여준 것은 각자 살 길은 알아서 챙겨라 였다.

이제 나이를 먹고 세상의 마지막 그 끝을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 남은 감정은 후회와 나 자신에 대한 연민... 안타까움... 자기 반성....

세뇌 교육에 따른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 없이 주입식 교육으로 국가에서 프로그래밍 된 대로 대중 심리에 따라 움직여 주는 로봇과 같은 인간.

오늘 하루는 경제는 둘째 치고 이런 사회 구조적인 거짓과 위선에 대해 다들 눈을 뜨는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본다.

경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침묵을 명령" 했기 때문에 입 닥치겠다.
전여옥 의원님... 유인촌 의원님... 이 자리를 빌어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무릎 꿇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 늙은 촌부를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 조선 시대에도 마을의 수령님께서서는 한 번의 자비로움을 베풀었다지요. 이제 의사 면담하러 가보겠습니다.

이제 늙어서 진실의 눈이라는걸 뜨면서 세상을 보는게 고통이다. 하지만 젊은 애들은 살 사람은 살아야지.

거짓 속에서 소중한 인생과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성을 하는게 중요 하다는 것이겠지.

이제부터는 올해를 기점으로 이 나라는 중대한 대국민적 의식 변화의 시기를 거칠 것이다. 이젠 더 이상의 맹목적인 학교 차원에서의 세뇌 교육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지.. ㅋㅋㅋㅋ.

뭐 하나!..

빨리 서점에 달려가서 신용 카드로라도 기초 일본어나 중국어 회화 교본이나 빨리 사서 공부해라.

취업 대비 문법 외국어나 토익 따위는 때려 치고 실전 회화를 하란 말이다.

이게 뭘 말인지는 더도 말고 딱 3년 후면 처절하게 깨닫게 되겠지. 다만 그게 안타까울 뿐이다.

이제 의사 면담 하러 가 봐야겠어.

난 공돌이니까... 난 노가다나 뛰니까... 그 짠 변명은 집어치고 한계를 긋지 말고 여태 대비책 알려준거 각자 다 알아서 준비하기 바란다.

하기사 다 지워버렸지만.. 요즘 젊은 것들은 머리가 좋으니 각자 알아서 잘 하겠지.

그리고 뭘 잘못 알고 있는게 있는데 60년대에도 머슴살이 하는 집안이 상당히 많았단다. 50년대 후반까지도 집에 부모에 짐꾼 들이는 집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애들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바뀌었다고 잠깐 생각 했는데 요새 보니까... 시간이 흘러도 이런 사회 계급 질서라는건... 여전 하군

개소문이가 말했지... 주인으로 살 것인가. 노예로 살 것인가...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고 주인이 주는 햄버거 부스러기나 받아먹으면서 중산층이라고 나름 자위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어찌 보면.. 쫓.. 긍정적인 삶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

다만 이제부터 이런 사회의식의 대 변혁기에 이런 걸로 시한폭탄 도화선에 불을 붙였으니.

정말 가관이겠구나. 점점 더 분열되어 간다.

그런 것들이 반공과 빨갱이 타령으로 예전에는 넘어 갈수 있었지만 이젠 안 먹혀 들지. 이것이 여태까지 사회의 어느 한 쪽 계층만의 희생을 강요해 왔던 기존 사회 질서의 모순에 대해서 이제 다들 자각이라는걸 하고 있으니까 생겨난 내부 균열이겠지.

그럼 사회적 합의라는걸 해서 봉합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 국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

그럼 남는건 끝없는 갈등과 내부 분열의 아마게돈이겠지...

트리클 다운 효과로 상류에서 위스키를 부으면 아래로 내려간다는 그 짠 구닥다리 80년대에 용도 폐기된 구식 경제학을 2008년 밀레니엄 한국 경제에 적용 시켜가는 상황에서 내부 분열까지 조장해서 시한 폭탄을 건드리면.

남은건... 30년 암흑 뿐...

다만 죽기 전에 너무 뻥하게 그림이 보이는것 같아서 그 점이 비극이라면 비극이구나.

더구나 이미 선제적 대응 조치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경제적 파탄까지..

모든 찬스와 기회를 놓쳐 버리고 상실한 이 나라...

예전 60년대에 일반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생활 방식들을 친정 엄마나 할아버지들한테 잘 물어 보라.

이젠 생활 방식의 변화 없이는 더 이상 살아가기 힘든 시절이 왔다. 작년까지의 생활 패턴을 버리고... 아니면 강제로라도 안 바꾸면...

남은건 이제 깡통 뿐이니까.

새대가 바뀌고 경제가 바뀌고 의식이 바뀌면... 당연히 기존의 생활 방식이나 패턴도 모조리 다 뜯어 고치고 바뀌야 한다.

실사 고통이 따르더라도... 아니 당연히 고통이 따르겠지. 여태까지 점심 시간에 밖에 식당 나가서 5500원짜리 6000원짜리 점심 먹고 커피 전문점에 10만원짜리 자켓에 연식 좋은 차를 할부로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고 커피는 회사 사무실 자판기 커피에 옷은 고쳐서 입고 차는 팔거나 중고차 고쳐서 쓰면서 영화는 극장이 아닌 컴퓨터로 보라면 당연히 나라도 돌아버릴꺼야.

하지만... 하지만 말이다...

이젠 세상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단다... 그 변화에 맞춰 주지 못하면... 남은 건 예전 공룡 멸종당하듯이 개인별로 경제적인 멸종... 그 뿐이겠지.

- S.H 병원에서... 늙은이가 -

"더 이상 서민들의 희생을 요구하기에는... 이 나라에서 천민들이라고 한나라당의 고귀하신 의원들께서 부르시는 일반 서민들은....

너무 지쳤습니다... 이젠 진이 빠져서 더 쥐어 짜 낼려고... 바닥난 애국심에 호소를 해서라도 쥐어짜서 희생을 하고 싶어도..

이젠 그럴 여력도... 힘도 남아 있지 않은...

말 그대로 죽은 천민 경제죠..."..

근대 자본주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자본주의 역사를 통틀어 한국처럼 이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과 대가를 요구하면서 경제 성장을 외치는 나라치고...

성장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

그래서 신기루에 말장난이라는 거지... 거짓말 같으면 국회 도서관부터 서울대 도서관까지 대형 도서관부터 서점들까지 모조리 다 뒤져서 사례집이나 논문들을 뒤져 보렴.

그럼 얼마나 웃기는 상황인지 처절하게 깨달을 테니까.

이제 이 나라 서민들은 쥐어 짜내려고 해도 더 이상 그럴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한 마디로 진이 빠져 버린 상태에서 뭘 더 어찌라고.. 무슨 60년대 새마을운동 할때처럼 조국 근대화 경제 발전을 위해 이 한몸 몸 바쳐 희생이라도 해 주기를 바라는 거냐???

진짜 기가 막혀서... 빨리 돼.져 버리든지 해야지...

자본주의 시소게임 매트릭스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과 댓가만을 요구하면서 이런 박정희식 토건족 애들 뒤나 닦아 주다가는..

이제 97년 IMF 똥을 10년 치운 걸로도 모자라서.. 앞으로 30년 이상 또 똥

치우고 그 뒷치닥 거리나 하게 생겼다.

그럴 자신들이나 있어?... 내 말은 여의도에 있는 애들 말고 이런 글 보는 일반 서민들 말야.

만약 그런 애가 있다면 정말 대통령 표창에 서울 시청 앞에 효자비라도 세워 줘야 할 지경이다.

나 같으면?... 이젠 진이 빠져서 진절머리 나서 또 그것거리는 못할꺼 같구나.

요즘 보면 왜 예전에 매 맞는 여자들이 야밤에 집에서 도망쳐 버리는지 그 심정을 알 것 같아.. 딱 그 심정이지.

몸서리 쳐지는게. 사람 피 말려 죽이는 나라지 이게 어디 사람 사는 나라야?

딱 그 상황이지.. 뭐가 틀리냐..

애 낳으라고 해서 애 낳아.. 설것이 해.. 빨래 해.. 시댁 챙겨라.. 술 사와라.. 이젠 돈 필요하니까 나가서 돈도 벌어 와라.. 밤에는 잠자리 봉사해라. 밖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샌드백 대용까지..

에~휴.. 도망가지... 도망가... 진절 머리가 나서 도망가.. 이젠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 진다. 다 늙어 빠져서.

만약 이걸 가지고 반국가적 어찌고 갖다 붙이면 그 때는 내가 졌다. 졌어.

나도 예전에 군다 나오고 2년간 국가 애국 청년단인가 뭔가에서 일 했으니까 충분히 이딴 말 할 자격은 된다고 본다.

이 나란.... 진짜..사람을 질러 버리게 하는 나라야... 그것도 참고 견디는 정도라는게 있는거 아니겠니?.

이제 의사 면담 시간이 되서 그만 가보겠어. 원하는대로 경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꺼냈으니 문제 될 건 없겠지!!!

이제 다 늙어 빠져서 병원이나 와서 의사 잔소리에 약이나 먹고 있는 팔짜지만 이젠.

정말 진절 머리가 난다.. 그 동안 속으면서 이 나라에서 살아 준 것도 인생 사기 당한 기분에.

더 이상 국가에서 애들 선동질 해서 달러나 금 쳐 내라고 충동질이나 하지 마..

이러고도 니들이 진짜 인간들이냐???

그리고 정 눈에 꼴싸나우면 고소장 쳐 보내지 말고 병원에 아예 킬러를 보내라.

전화 하면 어디 병원인지 내가 직접 가르쳐 줄테니까... 이젠 진짜 성질 안 맞아서 짜증나서 이 나라에서 못살겠다.

어차피 곧 죽을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돼지면 그게 그거지.

그리고 그 잘나 빠진 애국 타령은 집어치고 막스 베버가 뭐라 했는지 집에 가서 책이나 뒤져 보려무나.

또 이럼 빨갱이 타령 나오겠지.. 이 염병할 놈의 나라.. 나도 예전에 빨갱이 때려잡는다고 미친 짓거리 했으니 빨갱이 타령은 입 닥치렴.

이젠 진절 머리가 나는걸 넘어서 머리에서 빨이 자라려고 하니까.

<2008년11월13일>

04. 난 감정 배설구 노릇이나 하라고 한 적 없다.

여기서 일회성 감정 배설구나 정부 비난 하는 거나 욕 하는거나 보고 일시적으로 화풀이나 하라고 난 여지껏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실제로 젊은 애들은 앞으로 최소한 30년~40년 이상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살 길을 찾는 행동" 을 하라고 말한 것이다.

궁댕이 떴고 이제 일어나서 외국어를 공부 하는 "실질적인 행동적 지성" 이라는걸 갖추라고 말한 것뿐이다.

허구헌날 "내일.내일.내일" 타령에 인터넷 고스톱 사이버 머니 장난질로 인생 허비 하면서 사기 당하지 말라는게 진짜 의도 였다.

그리고 그 잘나 빠진 대안 어찌고 떠드는 애들은 입 닥쳐라.

이젠 솔직히 지겹다.

그 동안 뭘 어떻게 하란 대안은 썩 빠지게 수십번도 다각도로 말해 줬다.

그래서 이젠 실제로 막판까지 몰려서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실제 직접 지원까지 고려하고 있는 막장 중에 개 막장까지 온 것이다..

이게 여태까지 말한 그 잘나빠진 대안 중에서도 최악 중에 최악의 악수라는 것이다.

그래서 선제 조치를 말해 줘도 이제 와서 저지경이야. 근데 뭘 대안?.

대가리에 총 맞았니?. 그리고 공무원 애들이 그 고액 연봉 쳐 받고 그 애들은 다 쳐 놀아?.

일반 나 같은 늙은이들과 서민들이 여기서 정부 경제 정책 대안이나 쳐 말하게?.

개소리 다 집어 쳐라.. 그 동안 대안은 썩 빠지게 말하고 이젠 다 끝난 상황이야.

핵미사일 발사 버튼 눌러진 상황에서 다시 미사일 격납고로 원상 복귀시키는 대안 내 놓으라는 놈들이 미친놈들이지.

그리고 남보고 뭘 놈의 대안 꺼내 놓으라고 떠들 때 그 말 떠든 놈들은 거기에 맞는 카드 패를 보여 주고 나서 지킬여야 밸런스가 맞는거란다.

그게 아니라면.. 훗... 그냥 7살짜리 유치원 애들 수준의 꼬마 애들이 떠드는 말 장난 배설구로 밖에 아무도 거들떠 안 보지.

"정부가 개개인을 보호해 주지 못하면!... 각자 개인별로 생존 플랜을 짜는게 당연지사거늘"...

뭔 놈의 허구현날 그 잘나빠진 대안 타령이냐!.

입 닥쳐라... 그리고 서점가서 책을 사라...

옷 팔아서... 다 부질 없는 거니까.

언제부터 전세계 그 어떤 나라가 일반 백성들 보고 대안 내 놓으라고 지껄이는 나라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

그럼 정부고 국가고 그 존재 이유가 뭐가 필요해!.

돈만 쳐 먹는 비계 덩어리 공룡이지.

여기서 감정 배설구로만 삼지 말고 행동이라는걸 해서 외국어 배우고 생활 방식 바꾸고 부업 자리라도 알아 보는 식으로 살 길 찾는 행동적 지성이라는 삶의 자세를 가지라는게 핵심이다..

그 판 거지같은 대안타령하기에는 이미 그 시기는 모조리 다 지난 상황인니까!

진절 머리가 난다.. 니들은 이거 뭔가 주객이 전도된 뭔가 좀 웃기는 상황이라는 생각 안 드냐?.

멍청한 놈들. 한심스러워서 이젠 말이 안 나오는군. 일개 시민들 보고 정부 경제 정책 대안 짜 내라고 해서 여태까지 줄기차게 쳐 말해 주니까 이제 와서 핵탄두 발사 하고 나서 개소리 쳐 하는군.

그리고 나 보고 이 나라를 떠나라 마라 지껄일 자격이 있는 놈들이 아 나라에 그 누구도 없다.

그 이유는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군대에 3년을 위해 복무 했으며 세금과 이 나라의 근대화를 위해 내 동료들이 과로사로 쓰러져 나가는 그런 장례식장을 들락거리면서 이 나라 근 현대사의 이 모든 치욕과 경제 발전과 국가 재건을 위한 자양분으로 난 내 가족들까지 포기해 가면 온 몸을 다 바쳐 희생을 해서 나 스스로 포기를 할지 말지 그러한 권리를 내 힘으로 쟁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이 나라를 포기하고 버리고 말고 하는 권리는 오로지 철저하게 나 본인 개인 의지에 달린 것이지 그 누구도 ..

설사 국가라 할지라도 중세 시대 왕처럼 명령을 할 권리는 없을 것이며 이 나라에 있는 내 모든 재산권은 내가 일군 내 소유권이기 때문에 이 또한 그 누구도 이 나라에서 가라마라 명령할 권한은.

오로지.. 나. 나 자신뿐이다...

국가가상위 개념이라는 생각은 이제 집어 치워라... 내가 있어야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 누구도 국가를 위해 희생을 강제로 강요할 수는 없다.....

그만 입 닥... 쳐... 라...

나가고 말고에 관해서는 철저한 내 개인의 의지에 관한 일이니까... 어설픈 논증법 들이대면서 합리화 시키려고 깎치지 말란 말이다. 알겠니?

이런 부분을 하루 빨리 각성하고 나 자신의 권리를 지켜 내라는 것이 내가 여지껏 말한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 나라는 내가 버리고 말고를 결정 하는건 오로지 철저한 나 자신의 개인 의지에 따른 행동의 결과이며 이 모든 권리는 나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국가가 나를 버리는게 아니라 내가 국가를 버리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이며 내가 국가라는 집단 공동체를 위해 댓가를 치루고 희생을 하였다면 그에 상응 하는 권리 획득 또한 내가 가지는 것이다.

이 나 자신의 개인 고유 권리에 대한 침해 부문에 대해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애국 따위 들먹거리며 강요를 할 이유 따위란 단..

1%도 없으며 모든 행동적 선택에 따른 결과론적인 책임 또한 내가 지는 것이다...

이젠... 희생에 대한 무조건 적인 권리 포기 따위란...

단 1%도 용납할 수 없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만약 이걸 이기주의적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그

자체가 여지껏 세뇌 교육에 입각한 인생을 헛산 것이라고 난 100% 확신을 가지고 말해 줄수 있다...

그 땀 거지같은 소린...

이제 입 닥치렴...

그리고 이젠 깨어나라... 각성을 하고 나의 권리를 지킬 지적인 힘과 능력을 키워서 내 고귀한 권리를 스스로 지켜낼 힘을 가질 때.

진정 인간이 인간답고 국가가 개인을 유린하지 않으며 나 자신의 존귀함을 나 스스로 지켜내며 가족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이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자격"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건 반드시... 명심해라... 이런 정신적 유산을 내 자손과 후대에 물려줄 때만이 설사 재산 수천억을 물려준다 한들..

한 낮 신기루의 하룻밤에 꿈으로 사라질지니...

각자... 잘 새겨들어라.

<2008년11월13일>

05. "과연 나는 누구인가 "...

난 경제적 이야기를 쓰면... 안 된다...

그건 국가가 침묵을 명령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경제에 대한 부분은 일체 쓰지 않는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궁금해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내가 누군지 알 필요도 없다. 그리고 찾을 필요도 없다.

그 모든 것은 무의미 한 행동들이며 이제 어차피 오래 살지도 못하는 늙은이인데다가 자칫 그런 행동들이 사회 혼란 야기 목적의 위험한 행동들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에 대한건 처음부터 철저히 머리속에서 지워야 한다.

내가 한 일은 쉽게 말해서 여태까지 2차원적인 현실 세계를 3차원적인 시각적 관점이라는걸 가지고 바라보도록 쉽게 말해서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준 것 밖에 없다.

자....

한 사람이 그림을 보고 있다... 그림을 시각적으로 보는건 도화지상 2차원적인 데이터다...

이것은 일반 한국 국내에서의 뉴스 공중파... 메이저 신문들... 경제 잡지들... 정부 정책 발표들... 국가 정책들... 이런 것들이다..

하지만 문제는 세상에는 2차원적인 것은 없다는 것이다...

3차원적인 공간 형이상학적인 3D 의 입체감을 가지고 다양한 시각적 관점에서 면밀하게 여러 각도에서 경제적 현상이나 정치-경제-사회적인 연관 관계들을 보는 개개인의 시각적 관점과 그런걸 보는 능력이 중요하다는걸 강조한 것이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대 혼동이 밀려오는 것이다..

분명 현재 한국사회의 매트릭스 체계는 다양성이라는걸 용납하지를 않는다... 그건 일탈적인 통제 밖의 양식이다.. 망치로 두드려 튀어 나온 못을 가차 없이 때려 박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잔인한 현실이라는건 2차원이 아니라 3차원 적인 시각적 관점과 그에 따른 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외국 언론을 먼저 본 후에 국내 언론을 접해서 걸러 들어야 한다는 말이 바로 예전에 한 그 참 본질적 의미였다.

내가 한 일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옆에서 자극을 주면서 이런 다양성에 입각한 관점 부여와 동기 부여라는 탈 매트릭스 체계적인 이탈 동기 부여에 따른 생존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었다.

자... 분명히 매트릭스 체계인 냄비는 이제 덮혀지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 끓기 시작했다는걸 모두가 다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

그 1차 타격은 역시 소득 5분위 가운데 가장 밑바닥 계층부터 지금 허리케인이 몰아치고 있다.. 이걸 과담이 아니니 뭐라 하지 않을 변명의 여지가 없는 비정한 사실이다.

다만... 이런 구조적 매트릭스 체계에 대한 시각이 없이 매트릭스 안에서 사육만 당하고 있었다면?.

과연 지금 현재 나는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까 하는 것이 처음 말을 시작했을 그 당시부터의 본질적인 문제였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 매트릭스 체계를 보는 3차원적인 시각적 관점과 판단 능력의 중요성과 행동 능력.

그에 따른 개개인별의 서바이벌 생존 대처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모조리 알려 줄 만큼 알려 줬다.

난 기분 내키는 대로 거의 한 4번?... 정도를 지워 버렸다.. 지금 없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어떤 경제 현상이 딱 하나 터지면 그 한순간만 모면하는 스킬이 중요한게 아니라 구조적 매트릭스가 어떤 매트릭스인지 깨달아 가는게 핵심이기 때문에 여태 길게 말을 해가면서 해 준 것이었다.

난 여기서 글을 쓰지만 난 "미네르바"라는 아이디를 가진 정보량 2진수의 01001011의 그냥 단순 데이터일 뿐이다.

문제는 개개인별로 이런 차이점을 깨닫는데 핵심이 있다는 것이다.

이 차이점을 처음 말해주면 이해를 대다수 못한다...

중요한건 내가 아니라 이 걸 보는 개개인들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다.. 그래

서 사회 구조 매트릭스에 대한 자각과 각성과 깨달음을 통해서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내 경제적 재산권을 지키고 나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실제로 중요한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일본이나 중국에서 달러 스왑으로 몇 백억 달러를 들여오는게 중요한게 아니란 얘기다.

알겠니?..

그에 따른 파장이 뭔지 앞으로 그런 외부 변수+알파 라는게 어떤 여파로 매트릭스 전체에 여파가 미칠 것인지에 대한 예상과 각자의 대비라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3차원적인 관점을 키우라는 것이 핵심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굳이 전문 용어를 안 써 가면서 길게 쓴 이유가 그런 이유다.. 최대한 쉽게 비전문가 중심으로 말을 한 이유가 그 이유였다...

일반 학생이건.. 가정주부건... 노인정 노인네건... 동네 건설현장 아저씨건... 그 누구나.. 접근성에서의 제약이라는걸 받아서도 안되고 거리를 두어서도 안 되며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상에서 살고 있는한 철저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마치 옆에 마누라처럼... 핸드폰처럼...

있어도 없는 듯이. 없어도 있는 듯이... 물과 공기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말을 해 준 것이고 이런 가치적인 관점에서의 정보성이 아니라 정보를 볼 줄 아는 시각적 관점을 제공했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막대한 반발이 나왔던 것이었다.

난 뭐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많이 팔린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건 앞으로 살아가야할 20대나 30대.. 가족을 책임져야 할 40대 이상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빠른 각성을 하라고 노래를 부른 그 근본적인 이유의 핵심이 이런 것이다.

나... 혼자라면 괜찮지... 아니. 괜찮을 수도 있겠지... 나 혼자 라면이라도 끓여먹고 버티면 되니까.

근데...

만약 내가 지금 가족을 부양해야 할 위치라면?

애가 있다면?..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런 무지가 얼마나 위험천만 한 것인지에 대한 "자각"조차 없는 것이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현실이었다는걸 새삼 놀라서 말을 한 것이다.

내가 미쳤다고 말을 한게 아니다.

난 별로 이름 팔리고 싶은 생각도 없고... 얼굴이 왜 궁금한지 그것도 난 이해를 못하겠다... 그리고 그냥 이제 나이 먹어서 병원에서 요양 치료나 하는 늙은이에다가.. 의사가 지금은 잔소리 하는 마누라나 마찬가지로.

나에 대한 걸 궁금해 하지 말고... 이 글을 보는 "나"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찰이라는것 부터 일단 시작해라....

사람은 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잔인할 정도의 관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냉정하고 잔인하게... 극 사실주의적 관점에서... 지금의 나 자신의 가족 관계, 건강, 재산, 직업, 학력, 앞으로의 미래, 10년 내외의 미래 플랜, 예상되는 일들...

신체적으로 치아부터 몸에 이상은 있는지... 건강 검진은 받았는지... 어디 문제는 없는지..

습득한 실전 응용 기술이나 직장에 다 찼렸을 경우 가족 부양을 할 뭐가 남아있는건지...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자기 점검은 굉장히 중요함.. 최소한 서브 기술적 스킬에 대한건 재고해야 함)...

막말로... 회사 찼리고 내일 당장... 가족 부양을 위해서 사거리 한복판에 나가서 봉어빵 구울 자신은 있어???

그래서 물어보면 하나 같이 다 100%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신 있다고 하더군..

그래서 돈 500 주고 주말에 한 번 나가 보라고 했지?. 그러니까 결과는?...

52명 중... 30%??? 거의 사무직이나 하던 애들은... 쪽팔리다고 하나?... 낮가려서 못하더군.. 창피한거야... 잔인하게 말해서...

그래가지고는... 곤란하지... 말과 내재된 생각에 괴리가 생기면 앞으로가 문제란 거지..

그. 래. 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찰이 살면서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제 간호사가 불러서 가 봐야 한다...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말고. 이걸 보는 "나" 자신에 대한 호기심과 관찰과 각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차이를 알겠니?... 이 중요한 걸?..

나 자신을 관찰한다는게 어떤 것인지 얼핏 황당한 소리 같아 보이겠지만 이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을 들여 말하는 것이야..

그리고 난... 이제 부터는 경제에 대한건 단 한 마디도 말하면 안 돼...

이런 점들을 유의해서 잘 생각을 해 보렴... 난 이제 시어머니가 불러서 가 봐야겠다...

간호사가 시어머니 보다 더...

잔소리가 심하구나... 아 ..진짜... 그만 하라는구나... 이제 치료 때문에 당분간 못 온다...

그럼 잘 살으렴...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교과서적인 이론 경제학만 배우는 것 보다 살면서 개개인별로 더 중요하기 때문에 누누히 강조를 하는 이유다.
각자.. 심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관찰의 시간을 가지기 바란다... 그래야...

그 다음의 극복을 향한 나 자신에 대한 재건 플랜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야 나를 살려야 그 다음에 내 회사를 살리고 내 가게를 살리고.

그 다음에야 그 잘나빠진 애국하겠냐고 나서는 것이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하고 고향을 짜 내든 희생을 하건 어찌건 하건 말건 하는게 나오는 것이다.

당장. 집에서는 빵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뭘 놈의 여유가 있어서 거창하게 애국과 국가 발전과 사회 문제를 논한단 말인가.

세상에 그것처럼 한심한 것은 없다... 한심한 거라기 보다는 미친 거지..

<2008년11월13일>

06. "침묵은 금이다 " 라는걸 잊지 마십시오.

여긴 지금 아동 병동입니다. 여기서는 인터넷이 되기 때문이죠.

항상 말하던 전제가 있었습니다. "침묵은 금이다" 라고... 저에 대해서 이 늑
은이를 도와 줄려고도 찾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문제는 더욱더 복잡해 집니다.

이 모든건 제가 다 짊어지고 가야 할 짐들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길을 각자의 위치에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전거로 초원 한 복판의 갈대 숲 길을 가는데 저 언덕 건너
편에서 허리케인이 불어 닥치고 있다고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한 것 뿐입니
다.

저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많은 뛰어나신.. 저보다 훨씬 더 글을 잘 쓰시
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여러
분들께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핸들을 꺾어서 다른 길로 가시면서 내 자신의 존엄함과 존귀
함과 내 가족의 따듯한 안락감과 가족들의 기대와 웃음을 저 버리지 않으시
도록 계속 앞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굳이 호기심이라는 궁금증의 판도라 상자를 열고자 언덕 너머의 태
풍을 구경하겠다고 도와주신다는 말로 자꾸만 들추어 내신다면 문제만 더
심각해 지고 전 곤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아마 "대중 선동죄" 같은 유사한 범죄 사실만 추가가 될 뿐이
겠죠.

진정 위하신다면... 태풍을 구경하겠다는 판도라 상자를 열지 마시고 계속 자
신의 길을 가십시오.

어느 광고 카피에 나온 말처럼 지금 이미 모든 경제 보고서와 통계 전망치
와 예상 시뮬레이션은 지금 현재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정도의...

카피 말 그대로 "상상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절대 말 못합니다... 전 경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말하면 안 됩
니다.

거짓말로라도 내년 2009년에는 만사 다 잘 풀릴 거라고 말은 해 주고 싶지만 그건 극사실주의라는 저의 신념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이 정도 선에서 짜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존귀함을 이런 언덕 너머의 허리케인에 유린당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 경각심을 깨우치고자 말을 한 것 뿐이지.

자꾸 이런 식으로 들추시면 저만 더 곤란해집니다.

진정 그 의미를 각자 깨달으셨다면... 각자 준비하고 태풍에 집이 휩쓸려 나가지 않도록 지하실과 집안 기초를 손보는 일에 몰두하시는게 여러분이 현재로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뿐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날이 갈수록 시뮬레이션 모델에 추가 변수 값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어찌면 이젠 모델 자체를 바꿔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라는 겁니다.

이게 뭘 말인지는 대충 관련자 분들은 눈치를 대략 채셨겠죠.

하여간.

이제 찾지 마세요... 이걸 제가 자초한 일이고 제가 짊어질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안타까우시다면 이 모든 재앙과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나 자신의 존엄과 가족을 지키셨다면..

그걸로 된 것입니다.

지금 벌써부터 "미래에셋 헵박"이라는게 다음이라는 사이트 헤드라인에 버젓하게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전 글 쓴 다는게 이 정도로 이름 팔릴 줄은 처음부터 상상도 못했지만... 자꾸 들추시면서 방송 어쩌고 하시면..

그건 절 더욱더 곤란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전 그냥 여기서 0100101 같은 2진 데이터로만 존재하면 했지..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 때는 진짜 있는 비자 다 꺼내서 외국으로 가야 합니다...

전 이제 노쇠하여 병원 신세의 처량한 노인네에 불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상 그 태풍의 피해라는게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건 대충 짐작이 가기에 여지껏 말씀 드린 것 뿐이며 이건 개인적 차원에서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과 철학적인 면에서 설명을 나름대로 드린 것뿐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드셨다면..

마음으로만... 그저 마음으로만 잊지 마시고 가족들과 나 자신을 지키시면 그 걸로 되는 겁니다...

전 여기서 2진수로만 존재 해야지... 밖으로 끄집어내면 문제는 이제 걷잡을 수없이 커집니다.

제발 그 단계로 발전시키지 마시고요. 조용히... 그저 조용히 끝나기를 바랍니다.

취도 새도 모르게.

'침묵은 금이다'를 잊지 마시고... 시한폭탄의 뇌관은... 놔 두세요... 진짜 이제 병원 요양 치료를 해야합니다... 끄집어내면 싱가포르나 그런 쪽으로 가서 외국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 단계까지는 가게 하지 말아 주세요.

그냥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서 2진수 데이터로만 만나야 합니다. 그게 서로를 위하는 길입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 중 하나가 호기심이라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처럼 근원적인 태초의 질문이라는건 잘 알겠으나. 그로 인한 판도라 상자를 열면 모든게 다 종결된다는 것 또한 인생의 교훈입니다.

지금은 오로지... "자기 자신" 에 대한 것만 준비하세요... 그게 현재 여러분이 한국 국내에서 취하실 유일한 액션입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은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엑스트라는 모조리 다 휩쓸려 죽어 나가죠. 이게 뭘 말인 줄 아신다면 성스러운 마음으로 가족부터 챙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지하실로 내려가서 말뚝을 박으십시오.

그래야 내 가족과 재산을 지켜 겨울이 지나서 다시 봄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늪은이가-

<2008년11월14일>

07. 이제 조만간 대대적인 애국주의 광풍이 몰아칠 것이다.

네. 아름다운 아나운서 아가씨가 나온 방송을 잘 봤습니다. 저건 저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건 이해를 해 줘야죠.

왜냐하면 방송에서 정부를 정면에서 부정하고 나서면 공중과 방송상 수습을 하는데 견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공신력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철저히 부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디서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정부 공신력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비판을 해 버리면.

더구나 공영방송에서 그래 버리면 앞으로는 그 누구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겠죠. 오히려 저건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해할 수 없는건 FRB 스왑을 말한 적은 있어도 IMF 스왑을 하라고 왜곡 한건 좀 보기 꺾꺾럽더군요. 전 IMF 달러 스왑이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었죠.

야간에 응급센터에 나와서 티비 나오길래 보면서 빈둥거리면서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전 보다가 병원복 입고 갑자기 웃으니까 옆에서 방송 보던 아가씨가 쳐다보더군요.

솔직히 재미있더군요. 하지만 전 마피아는 아니죠~ 얼핏 보면 마치 무슨 조직 우두머리 마피아라도 되는 줄 알겠습니다.

저런건 솔직히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세삼 놀랐던 건 FRB를 IMF라고 왜곡을 할 정도로 내가 미움 받고 있었나 하는 사실 정도???

전 경제 예측이라는걸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극사실주의 적인 관점에서 1+1=2 라고 가르쳐 준 것 밖에는 없거든요.

하지만 나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게 왜 이렇게 이름이 팔린건지 이해가 불가능 하지만 저건 당연히 저렇게 해야 합니다.

그건 정부 공신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한 기본 ABC 수칙이죠. 저건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제 조만만 올해 말이나 내년 경부터는 대대적인 애국주의 열풍이 몰아닥

칠 겁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제사적인 걸 잘 공부해 보다 보면 한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한국 경제의 대중적인 패턴적 특징을 보면 늘 경제 위기=애국주의 열풍 으로 이어져 왔음을 나이 좀 먹은 사람들은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심지어는 군사 안보 분야까지도 경제 문제를 믹싱 해서 논리를 설파하고 대중 선동의 도구로 활용 하죠.

대중 선동이라고 하면 흔히 정치적인 이념적인 부분을 말하는걸로 알고 있지만 그건 대차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일반 서민분들이 가장 경계하면서 각자의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 볼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경제적인 대중 선동... 특히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흔히 요즘 말하는 범 애국 단체들에서 주축이 되어 벌어지는 경제위기 극복=애국주의 열풍 으로 몰아서 동참을 안 하면=매국노 로 양떼몰이를 해 간다는 것이 핵심적인 폐해죠.

가장 최근에 벌어진 초장기 싸이클상 관점으로 볼 때 97년 IMF 금모으기 같은 극적인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정부 차원에서의 극도로 잘짜여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벌어진 사실상 국가 주도의 플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후입니다.. 그 후 과연 그 경제적 애국주의 열풍으로 우리는 뭘 얻고 뭘 잃어 버렸는가 하는 것이죠.

답은 굳이 하지 않아도 그... 누구보다 개개인들이 잘 아시겠죠.

아마 지금 뉴라이트부터 정부 후원을 받는 시민 단체들을 중심으로 지금 세세한 세부 플랜이 만들어져 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부 직원들을 동원한 군중 심리 자극이라는 액션부터 밑바닥 물밑 작업을 시작하겠죠.

아마 이번에도 크게 예상이 틀리지 않으면 분명히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부터 시민 단체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경제 애국주의 열풍 이라는게 불어 닥칠 겁니다.

이것도 이젠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해두시는게 좋겠군요.

흔히 말하는 사상적 애국주의 이념이라는건 이제 한국에서는 사라진지 오래죠. 소멸... 그건 서해 해전이나 연평 해전 사태.. 북한 핵실험 같은 사례들을

유심히 캐치 해 보면서 이젠 흐름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문제에 대한 애국주의에 입각한 접근이라는건 더욱 치밀해 졌 더군요.

다만 문제의 핵심은... 이젠 양떼몰이를 하려고 해도 양들이 너무 똑똑해 졌다는 것이죠.

아니..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게 정확하겠죠.

이제 남은 선택은 딱 한가지 뿐입니다.

"알고서 속아 주기"... 다만 모르는척 연극을 하기를 바라는거죠... 이 나라는.

이제 겨울입니다. 가스 요금 또 올라간다죠. 가스 전기 요금에 상수도 요금을 또 올리면 이제 또 올 연말 아니면 내년에 또 물가 추가 상승 압박을 받겠죠.

진. 예전 머슴살이 할 때 10대 때 주인집 서재에서 책 몰래 훑쳐보기 시작하면서 여러가지 사례집들을 보면서 이런 경제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공공요금을 올리면서 물가 상승 자극 하는 나라는 내 살다살다 처음 봤습니다.

원래 경기 침체에 예전 70년대 미국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유럽, 일본 사례들을 보면 이런 경제 상황에서는 설사 적자가 나와도 일단은 최소 1년~1년 6개월간 정도는 정부 재정으로 적자 손실을 보존 처리 하고 요금을 동결 하는게 통상적인 룰입니다.

왜냐면 초간단하게 말해서 불난 집에 휘발유를 뿌리는 격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내 알바 아니라고 요금을 끌어 올린다고 잇을만 하면 정부 차원에서 자극 합니다.

이미 정부에 등록이 안된 젊은 20대나 30대 애들 중에 사실상 신 극빈층으로 분류된 애들이 최하 150만명선입니다.

말 그대로 서민 생활 축에도 못 들고 하루하루 어렵게 사는 경제 빈곤층이 이 정도라는거죠. 이 애들은 기초 생활자금이라고 정부에서 나오는것도 못 받고 말 그대로 이 한겨울에 내 몰려서 단기 아르바이트나 그런걸로 연명 하는 말 그대로 극빈층입니다.. 이 애들은 그 동안 카드로 버텼죠.

근데 이젠 그것도 이제 한계입니다.. 이젠 어떻게 아냐고요?. 카드사에 자료

뽑아 달라고 하십시오.

그럼 연령대별 연체율이나 소비 패턴 데이터 뽑으면 한 눈에 보입니다. 솔직히 비참하죠.

거기에 노인네들은 두말할 것도 없는데다가. 문제는 4.50대들.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젊은 애들은 외국어라도 배워서 외국에 막말로 달려 별이라도 가지.

40대 가족 딸리면 돈 좀 있지 않은 이상 한국 국내에서 애 키워야 하는데... 지금... 고용이 통채로 흔들리면... 뭘 어찌자고.

지금 연체율이 수직 상승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젠 카드사에서 예전에는 상담원이 연체 독촉 전화를 하더니 이젠 자동 응답기로 나온다고 병원에 온 여자애가 푸념을 할 정도니 말 다한 상황 아닙니까?.

정부 통계나 수치에 잡히지도 않는 신 극빈층.. 말 그대로 서민 생활 축에도 못 들 정도의 생활을 하는 애들이 최소 150만에서 200만명 이상인 상황에서.

지금 경기까지 갑자기 이래 버리면... 말 그대로 거리로 내 몰리는거지... 뭐 어찌라고. 이젠 노인네들만이 그런게 아닙니다.. 젊은 애들이 이렇다니까?.

방송에서 씹건 뭘 하건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올 겨울은 넘기게 해 줘야죠.

지금 이 한 겨울에 가스 전기를 갑자기 돈 연체 했다고 막 끊어 버리는건 이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그냥 칼 들고 길거리로 나가서 편의점이라도 털라는 소리 밖에는 안 되는거죠.

그럼 지금 바람 쐬쐬 부는데... 길바닥에 다 나가 죽을까요?.

아니면 몸이라도 팔아?. 피 뽑아서 매혈이라도 해?.

이건 아니죠... 그 알량한... 잘나빠진 복지... 해주려면 표시 나게 해 줄 생각 말고... 가스 수도 전기는 지금 최소한 이 한겨울에는 끊지 마셔야죠.

이건 죽으라는 소립니다.. 지금.

이게 별로 피부로 못 느껴지는 애들도 있다는건 하는데... 지금 집에 가스 끊기기 직전인 집들이 아마 수만 가구는 될 겁니다.

이거... 이런 거라도 막아주는게 지금 그 잘나 빠진 일본 중국에서 달러 스왑을 해 왔니 어찌니 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오죽하면 애들이... 너 제일 싫은 계절이 뭐니? 하면 겨울이라고 합니까?..

예전에 저도 주인집에서 나와서 머슴살이 끝내고 살 때 외풍 심한 냉방에서 많이 자 봤는데 ..

이건... 죽음입니다... 지금 그런 마지막에 내 몰린 애들이 길바닥에 깔렸다는게 문제죠.

최소한....겨울은 나게 해 줘야죠.

그리고 외국어를 지금 배우려면 문법용 외국어를 배우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철저한 실전 회화 트레이닝을 하십시오. 그래야 지금 당장 나가서 밥벌이를 해도 살아 남는거죠. 누가 시험용 외국어를 배우라고 했습니까?.

=====

나... 그냥 노인네야.... 뭐 잘났다고 방송에까지 저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건 당연한거지.. 솔직히.. 다 이해해.. 그리고 난 FRB 스왑이라고 했지 IMF 스왑이라고 한 적은 없고.

그리고 가스 전기 수도는... 끊지말라는게 아니라... 최소한 겨울지날 때까지 한 4월달까지는 보류를 해주라는거지.

다 일어 죽으라는 소리야?..

거기에 더 웃기는건 다 좋은데 왜 하필이면 이런 애매한 시기에 공공요금 인상이야?

이런 나라는 내 살다살다 진짜 처음 본다.. 최소한 웬만한 선진국에 이런 나라는 본 적이 없을 뿐더러 일본에서는 상속세법 최고 세율 5천만엔 상행 조정해서 상속세 올린다는데 도대체 이 나라는 이러는 저의가 뭘지 그 의도가 이젠 의심스러울 정도다.

한국이 일본 보다 선진국이야?... 더 잘사는 나라에 세금이 흘러넘치나?....

거기에 종부세를 여태 지방 재정 지원이나 지방 복지 기금으로 써서 노인네들 무료 급식부터 진료 소년 소녀 가장 집안 애들 먹여 살리는데 썼는데.

이제 종부세 없애 버리고.. 뭐?... 지방세를 추가 신설?

에~ 혀..

그냥... 죽여라. 이젠 서로 솔직해 지자.

여기서 경제 얘기 더 하면 빨갱이라고 하니까 그만 쓴다.

내가 예전에 말했지... 나 분명히 또 빨갱이로 몰아간다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어쩌면... 그렇게 그림이 뻥하게 보이냐... 너무 뻥해서 오히려 민망할 정도 니..

그리고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한것 뿐인데... 뭘 예측?... 내가 예측을 한게 아니라 난 1+1=2니까 핵겨울 준비하라고 말한 죄 밖에는 없어.

이러고도 빨갱이 타령하면 솔직히 할 말이 없다. 젊은 2,30대 애들 보고 이 나라는 미래가 없으니까 뉴욕행 비행기 표 끊으라고 말해 주는 수밖에. 어쩌라고...

그럼... 이제 알고 속아 주라는거야???

-늪은이가-

뱃데리가 다 되서 그만 써야겠어. 응급실에서 보다가 얼마나 황당했는줄 알아?...

니들...그거 알고 있니?... 사람이 알고 속아 주는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거야..

이제 내일 환율 얼마라고 얘기 안했으니까 빨갱이 선에서 끝내겠지.

아니면 아마 사탄이나 마귀라고 할테니까. ㄷㄷㄷ

내 이럴 줄 100% 확신했지.. 왜 빨갱이 타령 안하나 이상했어.. ㄷㄷㄷ 그럼 그렇지.

이러니까 이 나라가 빌어먹을 나라라는거야. 이제 왜 외국어 빨리 미리미리 배워 놓으라는지 알겠어?..

대중 통제라는게 여기서처럼 누수 현상이라는게 생기거나 고삐가 풀리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을수가 없는거야.. 환장을 하는거지. 안절부절....

하지만 저건 이해를 해.... 저건 당연한 거지... 다만 당연하다고 이해는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염증이 생기는군.

이런 이중인격자 같은 나라. 내가 안타까운건 20대, 30대 애들이다.

이 애들은 이런걸 빨리 깨닫고 살 길 찾아야 할텐데.. 안 그럼 또 휘둘릴게 너무나 뻔한 매트릭스거든. ㄷㄷㄷ

이젠 200% 분명하게 또 국가주의를 포장한 현대판 경제 애국주의 열풍이라는게 분명히 몰아닥칠 것이다.

아마 그 시작은 종교계나 시민 단체부터 스타트를 끊겠지.

조만간 기다려. 이제 곧 대중 선동의 진수가 뭔지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으로써 일반 거리에서 똑똑히 보게 될 날이 머지 않았으니까.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언제나 리바이벌 되어 온 교과서적인 양떼몰이 이론이니까.

이젠 구차해서 말이 안 나온다.. 아마 지금 일부 종교계를 중심으로 서서히 냄새 피우고 있지. 아마???

에~혀, 알고서 속아 준다고 눈치는 채고서 예전 97년에는 집에 금이란 금은 다 냈는데. 이젠 뭐?..

이젠 세금으로라도 조지실려고???

이게 현대판 농노지 뭐가 농노야?.. 다만 달라진 점은 핸드폰에 곡갱이 대신 컴퓨터를 쓴다는 것만 틀리지.

<2008년11월18일>

08. 이 나라는 확실히 미쳤다. 진짜 제 정신이 아니구나!

오늘 김영삼이 직접 나와서 떠드는 그 웃기는 코메디를 잘 들었다.

한마디로 순간 미친건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었다.

주제를 알아야 정상 아닌가?

경제는 둘째 치고 이 나라는 이제 미쳐 버리기 직전인 나라다.

현대사 교육?.

일단 닥치고 이것부터 보고 얘기하자. 이게 진정한 현대사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본다.

과거 94년도에 전쟁으로 온 나라를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고 97년에는 IMF로 경제를 말아 먹은 과거의 퇴물이 이제 10년이 지나서 지껄여 대는 걸 보니 확실히 망조는 망조라는걸 느낀다.

<http://www.imbc.com/broad/tv/culture/cantell/vod/index,1,list1,4.html>

2000년 7월 9일 : 94년도 한반도 전쟁 위기.

2003년 3월 30일 : 한국, IMF 로 가다

2004년 3월 7일 : 만주의 친일파

일단 닥치고 보고 난 다음에 떠들어라.

그럼 김영삼이라는 저 노인네는 확실히 제정신이 아니라는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현대사 교육? 조까고 있네... 차라리 이걸 1주일에 한편씩 보여 주는게 현대사 교육이야.

지금 이 모든 경제적 비극의 발단을 제공한 놈이 어떤 놈인지 두눈 똑바로 뜨고 잘 봐라.

특히 학생들... 이젠 외국어라는건 단순히 이제 취업이 문제가 아니다.

이제 나이불문하고 실전 외국어 능력이 한국 땅에서 생존과 직결이 되는 날이 내가 볼 때는 3년 안에 반드시 올꺼라고 확신한다.

일단 닥치고 보고 시작하자.

이 나라는 미쳤어... 정상어 아니냐.

백번 떠드는 것보다... 영상으로 확실하게 한번 보는게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겠지.

크르~~~~룽... 개 쌍... 지금.... 장난하냐?...

이것들이 보자보자 하니까 아주 개 막장질이네!!!

완전 미쳐서 발광을 하는구나!

과거의 IMF 범죄자 새끼들까지 쳐 기어 나와서 개소리를 짹짹 겁대거리 없이 지껄이느라 보니까.

확 쳐 맞을려고! 이런 깡패만도 못한 3류 양아치 같은 노인네까지 지.랄 꼴 짹짹 하고 자빠졌으니 윈.

지 주체를 알고 짹쳐야지.

이 나라를 진짜로 움직이는 놈들은 여의도에 있는 양아치 같은 애들이 아니다. 진짜는 지금 다 하나같이 가만히 일단 두 눈 치켜뜨고 일단 지켜보고 있는거야.

그 다음에도 막장 까면 그 때는 한 방에 다 확 쓸어버리는 수가 있다. 진짜.

지금 참는 데도 한계점이라는데 있는거야. 알고는 있냐?

진짜로 이 나라의 밑바닥에 숨은 자금력 동원하면 시중 은행 한두개 박살내 버리는건 일도 아니라 이거야!

건방진 걸 봐 주는 것도 한계라는데 있다 이 말이지. 알겠니?

이 나라의 진정한 숨은 힘은 촛불이 아니란 말이다. 자본의 힘이라는데로 모조리 다 쓸어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지.

진짜는 어설픈 도로에 나와서 그 짹 장난질 안해!.. 이게 뭘 말인지 아는 애들은 잘 알꺼야!

이제 사실상 마지막 기회야. 참고 이 짹 어린 애들 장난질 봐 주는 것도 인내력의 한계라는데 있다 이 말이지.

<2008년11월29일>

09. 잘 봤나?.

이젠 친일파 그 병,신 같은 새.끼들 똥이나 치우면서 뒷치닥 꺼리 하는 것도 신물이 난다.

도대체 이 쓰레기 같은 나라는 언제까지 친일파 찌꺼기 같은 병.신들이 싸지른 똥을 전국민들이 치우면서 신세 한탄이나 해야 하는지.

원. 멍청한 늙은 것들은 하도 세뇌 교육을 잘 받아서 내세울건 나이 하나로 밀어부쳐 가면서 개 꼴깁질을 하고 있으니.

진짜 웃기지도 않는군. 이 따위로 할 바에는 차라리 성을 나카무라로 쓰라고 하든가. 말만 한국말을 쓰고 있지 이젠 사방에 친일파 찌꺼기들이니.

이럴려면 다 때려 쳐. 고등학교 애들은 서연고 갈 능력 안 되면 아예 때려치고 외국어 배워서 해외로 똥을 생각 하고.

허구헌날 어설픈 대학 가서 삼질 해 봐야 나중에 둘 중 하나는 집에서 노니까.

뭘하러 돈 쳐 발라서 그 짠 짓거리 하나. 대학 장사 시켜 줄려고 그러냐?.

그 돈으로 외국 디자인 학교나 기술학교 나오면 현지에 취직자리가 깔렸다.

정신 좀 차려라. 상위 5% 애들 성적 만들어 줄려고 밀바닥에서 대가리 숫자 채워 주면서 삼질 할 생각 말고 빨리 살 길 찾는게 니들을 위하는 길이야.

말 거칠게 한다고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2008년11월29일>

10.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 - 1보

2008년 12월 29일 오후 2시 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 기관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달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

- 정부 긴급 업무 명령 1호-

중요 세부 사항은 각 회사별 자금 관리 운용팀에 문의 바람. 세부적인 스
팩은 법적 문제상 공개적으로 말할수 없음.

단 한시적인 기간 내의 정부 업무 명령인 것으로 제한 한다.

<2008년11월29일>

11. 한국 경제 성장률에 따른 스펙트럼 개요

2008년 2/4 분기 내 외국계 보고서 인용 - 한국 경제 성장률에 따른 스펙트럼 개요 분포도.

나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경제 펜더멘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경제 펜더멘탈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나 규모가 될려면 말 그대로 G7 내의 국가 정도... 혹은 자원 + 내수 시장 잠재 여력이 있는 단 두 가지 경우로써 한정해서 사용하는게 통상적인 관례였다.

왜 이 말이 이렇게 난립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하여간. 한국 경제의 현재 규모상 5%의 성장률이 깨졌다는 건 이미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대략적인 한국 경제 성장률에 따른 파급 여력 스펙트럼 개요도라는걸 볼 필요성이 재기 된다.

이런 한국 경제 파급 여력에 대한 2008년 2/4분기... 5월 말경으로 보는데...에 자세하게 조사한 외국계 보고서가 있었다.

경제 성장률 5% = 일반적인 정상 순환 경제 시스템
 경제 성장률 3% = 기업내 구조조정 압력
 경제 성장률 1% = 산업 경쟁력 구조조정 압력

경제 성장률 -1% = 산업 구조조정 압력으로 인한 기술/산업 경쟁력 = -3년
 경제 성장률 -2% = 산업 구조조정 압력으로 인한 기술/산업 경쟁력 = -5년
 경제 성장률 -3% = 산업 구조조정 압력으로 인한 기술/산업 경쟁력 = -7년

이 상황에서 만약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0% ~ -1%대 내외로 접어들 경우 2010년 이후 대중국 무역 수지 = -45% 감소.

그 이유는 현재 한국은 초간단하게 말해서 중국에 팔아서 일본에 돈을 갠다 주고 ==>> 차익 = 무역 수지 흑자 구조였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현재 중국의 빠른 산업 경쟁력의 확충에 말 그대로 중국 애들은 지금 조단위로 돈을 퍼 붓고 있다는 점이다. 그로 인한 2008년 2/4 분기 내의 상-중-하 로 산업 /기술 경쟁력 분석과 한국 10대 주력 수출 품목을 매칭 시켜서 볼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결론은...

2010년 이후에 현재 대중국 무역 수지 흑자가 1/2 이상 줄어든다는 사실이

다. 현재 중국의 하이테크 제조업 산업 매출액은 매출액 기준으로 중국 자국 기업: 외국계= 4:6 으로 상당 부분 극복을 해왔다는걸 알 수 있다.

이 상황에서 현재의 주요 대기업 + 중소기업의 재투자 여력 축소에 따른 산업/기술 경쟁력 격차가 2년 내외인걸 감안하면 2011년 경 부터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경우를 상정하고 지금 일본 내에서는 정부 주도하의 대규모 기술 개발 R&D 예산 확충에 따른 자본 확충으로 2015년~2017년 이후의 새로운 경제 호황 싸이클에 대비한 대규모 국가 전략 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 규모산으로 보면 한국:일본=1:17.5 정도며 일본 애들은 돈을 얼마나 더 끌어 모을지는 지금 아직은 모르겠다..

하여간 지금 엄청난 돈을 끌어 모으고 있는 건 확실하다.

이 핵심은 결국 에너지+유통 분야로 요약 된다. 1998년에 한국에서 IMF 를 극복한 결정적인 원동력은 다들 아시다시피 달러 유동성+IT 였다. 즉 한마디로 IT 버블 확대를 기반에 둔 자본 유동성의 시중 공급으로 인한 중산층 이하의 소비 여력의 회복에 기인한 수출 ==>> 내수 순환 시스템의 정상 복구로 비록 그 후유증으로 2004년에 카드 대란으로 신용 불량자 500만을 맞았으나 진흙더미 만신창이 98년 IMF 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더구나 2004년도에 고조된 경제 위기설로 사회가 난리가 나고 심지어는 토론에 까지 한나라당에서 나와서 노무현 타령을 할 그 당시.

총 자영업 도산률 = -5% 내외였다는 걸 볼때 현재 자영업 도산률이 얼마인지는 자료를 못 봐서 정확히 이걸 모르지만 2004년도에 -5% 도산으로 그 난리가 났는데.

그럼 지금은?... 과연 뭐지?

무조건 비난을 하고 까자는게 아니라. 개인별 대응 전략이라는게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서 개인별로 회사별로 대응 조치라는건 대중국 사업 전략, 그리고 지금 이미 기업 구조 조정이 이미 가시화 된 마당에 자영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시기는 언제로 잡을 것인가.. 그런것들을 빨리 캐치해 내는 자만이 2015년 이후의 경기 순환 싸이클상의 다시 찾아 오는 경제 호황기의 금맥을 잡을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가계 가정에서 제일 많은 지출 항목은 학원비 + 금융비용이다. 그런데

현재 학원비를 줄일 정도라면 그야말로 일반 가정내의 소비 여력이 거의 바닥이라는걸 의미 한다.

여기에 환율로 인한 기업 구조 조정 여파와 부동산 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라는건 대략 '주식:부동산 자산 가치 변동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1:6.5배' 로 보는게 보통이다.

한 마디로 한국적 상황에서 일반 가계들은 주가 하락에 다른 자산 손실 보다는 부동산 보유 자산의 가치 하락 변동에 따른 역 레버리지 효과로 인한 심리적/외생적 소비 감소 비율이 그에 대략 6배 정도의 파급 효과가 미친다는 사실이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단순히 집값 하락 그 하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의 경제 시스템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대학 기초 경제학만 보고 정책 하나 만들고 밀어 부치면 만사 장땡인 70년대 경제가 아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 일반 가계 소비 여력 감소 ==>> 자영업 붕괴 로 이어진다.

이게 다시 역 싸이클로 자영업 붕괴 ==>> 금융 시장 부실 간접 파급 여력 + 연체율 상승 = 금융 리스크 비용 증가라는 걸로 이어져 정부 재정 압박 요인으로 추가 작용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폭락에 난리 부르스를 치는 이유가 이것이다.

은행이 리스크 비용 증가로 빠뜨덕 거리면 추가 공적 자금을 퍼 부어야 한다.. 근데 문제는 초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돈이 없다.

그럼 남는 돈 안드는 방법은?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수 밖에 없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건 이것도 안 먹혀 들면 마지막 최후의 저지선은 결국 "돈 싸움" 을 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 내수 경기부양이라고 사방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튀어 나온다. 근데 이 때 한가지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

다 좋다.. 이거야... 근데... 돈은 어디서 가져 오느냐 + 어느 계층을 희생량으로 삼아서 위기 극복을 하느냐...

그래서 지금 오만 가지 머리를 쓰면서 종합 재산세까지 들먹거리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심지어는 개 한테까지 세금 매긴다고. 지금 한국 경제 수준으로 2008년 2/4분기 정도의 내수 구매 여력을 보존 하려면 최소 7조 이상만 단독 예산으로 집행해서 뿌려야 한다.

SOC 사업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돈을 뿌려서 중산층 이하의 서민 소비 구매 여력 확보 ==>> 내수 시장 보존으로 이런 불경기를 뛰어 넘는 상황에서는 정부 조정이라는 건 경제학에서 거의 기본 베이직 룰인데.

확신이 없으니까 결국 예산 투입 여력에 따른 시뮬레이션 모델 결과 산출을 일본.... 아니면 과거 70년대 나 80년대에서 찾으려고 한다. 근데 이것도 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이미 지난 과거의 모델 데이터라는 것이다. 흔히 이런 데이터를 보면 과거값을 보여 주고 향후 결과가 이럴 것이다...라는게 통상적이다. 근데 그건 경제가 이미 발전 될 대로 발전 된 선진국에서는 가능한 얘기지만.

한국이나 대만 같은 5% 대 성제 성장률을 했던.... 나라는 예외다... 이미 폐기될 과거의 자료다. 그래서 결과 또한 전혀 다르게 나온다. 이 점이 굉장히 까다로운 점이다.

왜 돈 이기 이전에 인간 관찰이 우선이냐 하면 인간의 행동 패턴을 예상 한다는건 굉장히 어렵다. 더구나 이제 지금과 같은 경제 불황을 뛰어 넘는 시기에는 통상적인 일반 경제학이라는게 안 먹혀 든다.

금리를 내리면 대출로 돈이 풀려서 소비로 내수가 살아 나고 구매 여력이 활성화 되어 정상이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다는 얘기지. 전문 용어 집어치고...

근데... 돈을 안 써... 돈도 안 풀려... 정책 효과는 이제 의심스런 수준... 이러니 경기 부양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미 검증이 된.....

과거 모델... SOC 투자에 집중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모든 비극은 시작 된다....

=====

내 고종 사촌 조카 중 막내 하나가 말 그대로 노가다다. 건설 회사 다니면서 지방 다니는 애가하나 있는데 .

그래... 다 양보해서 SOC 로 내수 경제 부양을 해 준다고 하자고. .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는 나올 수도 있다는데 뭐라 하겠냐.. 근데 문제는 지방 토목 공사만 보자면 이젠 지방에는 조선족들조차 안 갈려고 하는게 지방 현장이란다.

즉 한 마디로 지방에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에 딱 가보면 소장, 중장비 기사. 일부 핵심 기능공. 사무실 직원.... 빼면 전부 다

90%가 외국인인데 도대체 무슨 내수 경제 활성화라는 건지 현실성도 덜어질 뿐더러. 대형 토목 공사를 한다고 쳐도 1930년대 미국처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중장비로 공사를 한다.

그럼.... 과연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이걸 위해서 이제 중장비 전문 학원을 다녀야 한단 말인가?

100번 양보해서 이것까지도 오케이라고 일단 치자.

그럼 이 외국인 근로자가 그 지방에서 돈을 쓰고 다니면 막말로 내수 경기라는 목적에 부합을 하게 된다.

문제는.... 모조리 다 돈을 자국에 송금을 한다는거지. 심지어는 컨테이너에 스펀지 깔고 숙식은 현장에 있는 식당 함바집에 가서 다 먹고 해결하고 식권?... 이라고 하나?..

식권 주고 담배 사 피는데 뭘 놈의 내수?... 이러는데... 이걸 좀 웃기는거 아닌가?.

그럼 이제 도면 짝 펼쳐 놓고 중장비를 쓰지 말고 사람이 인력으로 공사를 하도록 전체 공정을 변경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

외국에서는 IT ==>> BT ==>> RET 라고 해서 일본 애들은 지금 독일에 떼거지로 다 몰려서 특허 쇼핑에 기술 제휴까지 쌍 쏘를 하면서 같이 먹어 보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건.... 도대체 어찌라는 건지....

그나저나 요즘 중장비 포크레인 3개월 자격증 따는데 원비가 얼마인지 모르겠군. 여기 병원에 있는 누구 아들래미가 고등학교 졸업반인데 이거 배우려고 한다는 아줌마가 하나 있어서.

대충 굴러가는 바닥이라는데 이 정도 수준이고. 자영업은 지금 현재 상황으

로씨는 집에서 놀고 있다고 조급증 느낀다고 가게 차리면 안 된다. 2011년까지는 일단 참고있는거 지켜야지.

그리고 고등학생 애들도 지금 1~2학년이라면 과도한 쓸모없는 경쟁 체제에 뛰어 들어서 시간 낭비+돈 낭비를 할게 아니라 전략을 대폭 수정해서 외국어에 올인 해야 한다.

학교에서 40등 하던 애가 중국어나 일본어 배우겠다고 학교 공부 안 될꺼 같으니까 포기하고 외국어에 올인 하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말할 선생은 없을꺼라고 본다.

나 같으면 현재 입시 경쟁에서 상위 15% 밖으로 밀려 났다면 지금 고등학교 학교 공부는 포기 한다. 그리고 2015년 이후를 대비해서 제 2 외국어로 최소한 외국어를 2개 정도에 모두 올인할 것이다. 이젠 얼치기로 있다가는 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굶는다.

이젠 올 오위 낫쌍이다. 중간은 없다. 내 세대가 아니라 내 자식 세대. 그리고 지금 젊은 애 아빠들이 늙었을 경우를 시뮬레이션 해 보면 지금 부의 재분배적 관점에서 보면 답은 이미 나온 것이다.

왜냐면 이제 한국 국내에서 산업 별로 잉여 인력을 더 이상 흡수 시켜 줄 수 있는 경제 규모가 한국은 안 된다..

남는 방법은 인구가 줄어드는 방법 뿐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럼 결국은 고등학교 때부터의 완벽한 차별화 전략이 이젠 내 아들 딸 자식들에게 밥 숟가락이라도 쥐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 버렸기 때문에.

한국 나가면 매국노라는데. 한국 땅에서 손가락 빨고 있을수는 없잖아?

그럼 방법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돈 벌어서 그 나라 극도로 이젠 사회적 기회 비용이라는게 없어진 나라에서 먹고 사는건 결국 수출입 무역 종사자 되는 길 뿐이지.

한국에서 이제 진짜로 돈 버는건 수출 관련 무역업 아니면 전문직이나 대기업 종사자... 그런 부류 밖에는 없어. 내부 메트릭스 안에서 집어 먹는 건 더 이상 없다는거지.

한 마디로 총 자본 총량이라는 걸 100이라고 할때 '자본 배분 여력 <<< 인구 대비'로 이미 과도하게 역전된 사회라는거지.

그럼... 나 같은 부모 세대는 그냥 일단 산다고 치자... 그럼 내 애들은 어쩔래?... 물려줄 유산이 많은가? 아니면 먹고 살게 해줄 방법이라는건 한번 생

각해 봤는가?

이제는 내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집에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이 있다면 내가 먹고 사는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내 애들은 뭘 먹고 살게 해 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지.

이걸 배부른 소리라고 하면 그건 이젠 무책임한 소리고....

옛말에 공부만 잘하면 다 잘 먹고 살 수 있다... 그래 맞는 말이지... 내 부모 세대가 바라보던 (나 같은 노인네 말고 젊은 애 아빠들) 세상에서는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 지던 때거든.. 고급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은?... 그 때가 아니니까 지금 세대의 부모라면 내 애들한테 그렇게 똑같이 전 세대 부모에게 학습된 그대로 말하면 안 되지.

바로 그런 차이라는 거야...지금 애들한테는 막연하게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먹고 살 방향 제시나 구체적인 걸 애기 해 주면서 부모의 경험적 지식이나 그런걸 전수해 줘야지.

시대가 변하면 생각이 변하고 관점도 변한다..

하지만 관점이 정체되면 나 뿐만이 아니라 3대가 고생하는 세상이다.

- 오늘은 병원에서 해 주는 비디오 시청 시간이라 끄적거렸음. -

난 정부 정책이고 나발이고 그 따건 다 관심 없다.

하지만 젊은 애 아빠들 애 엄마들은 애들을 계속 키우고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 그러자면 흐름을 알고 대책 세우고 대비하는 수 밖엔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난 강만수가 외계인이라고 해도... 안드로메다에서 산다고 해도 이젠 내 알바 아니다.

강만수나 나경원 유인촌 같은 사람들은 귀족들이다.

나 같은 천민들이 먹고 살려면 이 정도 그 이상으로 더 약아 빠져야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기 때문이다.

귀족하고... 나 같은 천민 하고 어떻게 동급이냐!!!

당연한 거 아니냐?

미국에서도 ‘월 스트리트 = 금융 귀족’ 하고 ‘메인 스트리트 = 일반 서민 경제’로 계급이 나뉜다.

그런 마당에 앞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평등국가라고 떠드는 놈이 있다면 난 가서 싸대기를 날려 버릴 것이다.

그와 더불어 이젠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은 국어사전에서 지워 버려야 할 용어다.

그건 나 같은 노인네들 세대에서나 먹혔던 애기지 지금은 아냐!... 정신 차려라.

지금 자기 사회 계급적 지위가 뭘지 부터 똑바로 알아야 한다. 여기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때문이다.

이건 결코 아니꼬운 애기가 아니다. 내가 지금 천민인데 귀족 행세 해 봐야 파산이다. 그 땐 노예로 추락 하는 것이다.

사실 까놓고 얘기 하는 거지만 근대 서구 민주주의 150년.... 한국은 일제 병합기 -60년 전만 해도 철저한 계급 사회였고 아직도 그 사회적 뿌리라는 건 이제 드러나지만 앓을 뿐이지 그대로다.

반드시 명심해라.

짱!!!!!!!!!!!!!!

<08년12월29일>

12. 존경하는 강만수 장관님께

강만수 장관은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학교 다닐때부터 천재라고 불려 온 말 그대로 재원이었다. 이걸 일단 인정을 해야 한다. 거기에 학교 다닐 때는 소설인지 뭔지 글까지 쓴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는건 분명하다.

그리고 80년대 미국 월 스트리트를 누비고 다니면서 국제 금융의 감각을 나름대로... 키웠다고 한다면 키운 사람이다.

정부에서는 고급 재원들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자체적으로 유학을 몇 년씩 보내 준다.

이건 일단 은행이나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말은 안 하지만 서류 심사를 할 때부터 임원급으로 키울 핵심 재원 10%는 미리 뽑아 놓고 면접을 보는게 보통이다.

이건 외국도 그리 큰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도 현장 업무 경험을 몇 년 쌓고 본점으로 가거나 대기업 같은 곳에서도 그룹 차원에서 핵심 인재 보호와 관리는 인사부에서 필수다.

그래.....

다 좋다 이거야..

협조 공문이건 정부 업무 명령이건 다 좋은데....

왜 거짓말을 하나 이거지.... 자꾸 통계 수치 오류와 뻔한 거짓말을 대 놓고 하면...

일반 기업이나 국민이나 경제 개별 주체간에 서로 믿을 수가 없다.. 솔직히 지금 나라 망하자고 할 수는 없잖아?

젊은 애 아빠들은 이제 애들 키워야지.. 갓난 애기들 3살...7살 짜리에 이제 초등학교 4학년..5학년짜리 애들 다 커서 대학 보내고 기반 잡아 줄려면.

솔직히 지금 노후 준비는 한국적상황에서 40대부터 해야 하지만 그럴 여력도 안 되는게 거의 대부분이다.

까 놓고 얘기 해서...

제발... 거짓말은 하지 말자... 그래야 어떻게든 마음 잡고 이제 잘해 볼려는 국민들도 많은데 여기에 등에 비수를 박아 넣는거 아니니?

장관님... 요즘 애들 말대로... 킹 왕 짱 먹으세요...

그리고 아무리 구라 쳐 봐야 거짓말은 100% 다 알아.... 요즘에는 실시간으로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보다 영국 런던에서 더 빨리 아는 세상이야.

근데 자꾸 왜곡하고 속이려면 일반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어.

증말.... 거짓말은 하지 말자... 그게 개 구라인지 진짜인지는 전화 2~3 통만 하면 금방 다 아는 세상니까.

이런말 하기 전에 재경부 내부 스파이부터 잡을 생각부터 해라.

외국계 금융 회사 하고 내통하고 있는 놈들이 없을꺼 같지?... 에~ 혀...

이런걸 정부 기관이나 회사나 보안 라인 누수 현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모건 놈들이 한국 상황을 한국 국내에서 보다 더 잘 스캔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다.

개 쌍.년들이지.

장관님... 일단 자기 부서 보안 라인부터 당장 조사해 보세요... 농담 아니라 진심 어린 충정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어찌겠어....장관 안 바꾸겠다는데 설득이라도 해서 먹고 살 생각 해야지.

난 그래... 좌빨 빨갱이라고 치자고... 근데 내부 정보 누수도 관리가 안 되는 건 좀 웃기는거 아니냐?

만약 조사해서 없다면 천만 다행이지만 장관님도 이제 바보가 아니시라면 정보가 세고 있다는건 아실꺼 아닙니까?

강만수 장관님... 제발... 부탁 드릴께요.... 꾸벅..

이제 노인네 저녁 먹고 약물 치료 받으러 가야 하니까... 이젠 쓸 일 없을꺼야..

그리고 난 자꾸 좌빨 빨갱이라고 하는데. 나 만큼 목숨 걸고 달려 벌러 썩

빠지게 다닌 놈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나 같은 노인네들이 브라질.. 중동.. 사우디.. 이스라엘.. 6일전쟁인지 뭔지 터져서 억류 된 적에.. 남아공... 일본은 제집 들락거리듯이 가서 여권 위조한거 아니냐고 심문까지 받을 정도에.

중말 나 같은 열혈 애국자 늙은이들이 썩 빠지게 중동 모래 바람 맞아 가면서 몸 다 망가지도록 일해서 달려 벌어 왔다.

근데 보상이... 바른말 했다고....

좌빨 빨갱이나?.

참 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왜 나 같은 늙은이들이 나이 먹고 고생 하는 줄 알아?.. 젊어서 몸을 막 굴려서 그래.

심지어는 브라질에서는 같이 간 애들 두 명 하고 길거리에서 노숙까지 했어. 달려 벌어 온게 애국이지.

그럼....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나도 부동산 투기질 했다. 진짜 억울한 역사의 희생량은 나 같은 노인네들이야.

이거 왜 이래!.

<08년12월29일>

13.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헌건데

아니... 나라를 사랑 하는 마음에서 열혈 애국자 입장에서 피를 토하면서 나라 사랑에 국가 경제를 걱정해서 말을 하는데도.

나쁜 영감이라고 매국노라고 하네...

아~ 놈.... 진짜.

내가 너무 밖으로만 돌아서 그런건지.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난 진심으로 나라사랑하는 마음에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열혈 애국자의 입장에서 말한 것 뿐이다.

그래서 애들 키우고 한 번 아름다운 잘 사는 나라 만들어 보자는게 이렇게 나쁜 건지 몰랐다.

진짜 무섭다는 생각이든다.

나도 이제 생각 고쳐먹고 다 같이 살아 보자는 입장으로 생각 고쳐먹기로 한 사람이다. 근데 왜 이 열혈 애국자의 뜨거운 마음을 몰라 주는지 모르겠다.

나라 사랑한게 죄는 아니잖아. 이젠 부담스러워서 뭐라고 쓰지도 못하겠네.

이제 나 같은 천민들도 애들 키우면서 다 같이 살 길 찾아 보자는 것 뿐이다. 참 마음 짠 해 지는 한겨울이다.

언젠가는 이 노인네의 진심을 알아 줄 날이 있을 꺼라고 믿는다. 병원 나가면 서울역 이나 청량리 역에 가서 노숙자 무료 식사 제공하는 밥 퍼주는 일이나 해야겠다.

알고 보면 그 사람들도 산업 역꾼들이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이 자꾸 잡혀 가네 어찌네 하는데...

솔직히 난 왜 잡혀 가야 하는 건지도 이해를 못하겠다.

미국에서도 이러지는 않는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현실과 이성의 괴리 사이에서 솔직히 괴롭다.

납득을 하면 덜 괴로울 수도 있는데. 왜 내가 잡혀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도

저히 납득을 못하겠다.

그런 점들이 나이 먹고 나니까 참... 뭐랄까.. 이성과 현실의 충돌이랄까.

짠해 진다.

닭을 보이는 그대로 닭이라고 하고, 고양이를 보이는 그대로 고양이라고 하는데 왜 닭을 치킨이나 비둘기라고 해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될 뿐이다.

난 이런 문화적 충격이라는걸 늙어서 여기서 처음 받는 것 같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러지는 않는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생각뿐이다.

열혈 애국자의 입장에서 강만수 장관님을 걱정 하는 것도 죄라니...원

<08년12월29일>

14. 속 상하다.... 그리고 사과 드린다.

난 닭은 닭이라고 하고 고양이를 고양이라고 한 거 밖에 없는데 약간 문화적 충격을 받은 것 같다.

그래서 강만수 장관님께 사죄 드린다.

그리고 이제 다 지우고 2월달에 퇴원하면 암전하게 청량리나 서울역 같은데 가서 사랑의 밥 나누기 행사 같은 데나 다니겠다.

난 열혈 애국자로서 쓴 거 밖에 없는데 나쁜 영감이라니. 잘못이라면 잘못 인정 해야지.

다만 젊은 애들 아빠나 엄마들이 건강하게 갓난 아기들을 잘 키웠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올리고 싶으면 고양이 사진이나 올리겠다.

강만수 장관님이 알아서 잘 해 주시겠지. 뭐. 어찌겠냐. 많이 배우시고 똑똑 하신데.

괜히 썼다... 후회한다. 사진 삭제한 것이다

나는 아직도 이 강한 거부감을 일으키는 뭔지 알수가 없는 이 미묘한 문화적 차이가 뭔지 이해는 못하지만 일단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겠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고의는 아니였다.

그리고 난 달러 송금 보내는 외국에 자식 보낸 학부모나 소규모 장사 하는 수입상들 보고 참고 하라고 말한 것뿐인데 왜 못 잡아먹어서 난리를 치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다.

하지만 이것 또한 문제가 된다면 이해하겠다.. 이것도 죄송하게 생각한다.

꾸벅.... 스미마셴.

- 사과문-

-폐업-

그러길래 조용조용 쥐 죽은 듯이 소규모 모임처럼 했으면 이런 일도 안 터지고 좋았을 텐데.

사방팔방에 이름 팔리는 바람에... 완전 팡 되 버렸다.. 그럼 아줌마들 아들한테 달려 보내거나 수입 결재나 채권이나 국채 거래 하는 것 같은 금융 정보 커뮤니케이션 주고받을 수 있는데.. 쫓..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인건지. 원.

하지 마라니까 내부 참고용으로 만들어 논 걸 잡지사에 가져다가 팔아먹는 놈이 있지 않나. 들 쭈는 놈이 있지 않나. 에이그.

그래서 다시 쥐 죽은 듯이 개업 할 때 그렇게 아무것도 누르지 마라니까.

결론은.....

폐업이네.. ㅠ

<08년12월29일>

15. 마지막에 기댈 것은 결국 희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늙고 초라한 노인네가 이제 제 이야기 하나를 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결국 마지막에 기댈 것은 희망이라는 단어라고 적었습니다.

사람이란 생노병사라는 거역할 수 없는 인생의 굴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젠 의사가 술은 그만 마시라고 하는데 사람이란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는 것이란 본능적으로 아는 법.

그것은 젊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 할수 없는 영역이지만 나이를 먹으면 자신의 신체적 나이라는 걸 본인 스스로 체감하게 되지요. 한 마디로 사람이라는 건 나이가 먹으면 자신이 대략 언제쯤 인생을 마감할 것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

네... 그렇습니다. 전 치열하다면 치열하게 비겁하다면 비겁한 한평생을 살아 온 사람입니다.

젊을 때는 고 정주영 옹께서 하신 것처럼 집에서 소를 훔쳐 온것 가지는 아니여도 젊은 혈기에 집에 있는걸 들고 도망치다 시피 나와서 말 그대로 서울땅에 올라 와서 사기라면 지금의 펀드를 날려 먹었다는 그런식의 사기를 당하고 나서 제 아버님으로부터... 어머님으로 부터 다리 밑에서 빌어 먹을 놈이라는 모욕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 시절에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후에 나중에 머슴살이라는 것도 했습니다. 머슴살이라는것이 예전 조선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50년대... 그리고 60년대 까지도 집 안에서 식모살이 비슷한 그렇게 사는 머슴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후 50년.... 직접 겪어 보지 못한 분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지옥의 끝이라는 것을 직접 뼈를 깎는다는 처절한 인간의 마음 속 절망과 좌절의 시간들이 이 한국이라는 땅에 존재 했습니다.

전후 50년대. 전쟁은 53년 후에 끝나고 말 그대로 미군정이라는 것이 세워질 그 당시 서울의 모습이라는 것은 처참함. 그리고 아이들의 울부짓음.

공중 폭격이라는 것이 지금 영화나. 저도 봤습니다만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하나요?. 그런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함.... 그 말로 밖에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때는 미국의 식량 원조로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메이드 인 유에스 에이 라는 스탬프가 찍힌 것이 인천항에 미군 화물선에 양키 애들이 선적해다 주는 걸로 끼니를 해결하던 그 시절이었죠.

저희 같은 늙은이들은 그런 시간을 전후 53년 이후... 말 그대로 10년여에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지방의 땅을 가진 지주들이나 원래 예전에 돈을 가진 그룹을 제외 한다면 거의 대부분 저와 같은 참담한 그 저주 받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과연 어떤 생각과 고민들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전 그때 오로지 살아 남아야겠다는 그 생각 밖에 안들더군요. 생존.... 그 생각 뿐이었습니다. 그 때는 서울에 3층 이상 건물이라는 것이 공중 폭격으로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고국을 등지고 독일로 미국으로 독일에는 그 당시 남자는 광부로 가서 지하 몇 백미터..아니면 노천 탄광이라고 땅을 안 파고 가는 프랑스 접경 지역의 알자스 지방으로 가서 달러벌이를. 한국계 간호사로는 여성분들이 무수히 가서 일을 하고 달러로 고국에 송금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전까지는 20대 까지는 군대에.. 흔히 예전 분들이 말하는 머슴살이라는 걸로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전 학위라는 것도 30살이 넘어서 흔히 미국 유학 가셨다는 그 분들이 말하는 썩 빠지게 고생 했다는 그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그런 류의 고생이라는걸 해서 학사 석사 과정을 밟아 가면서 말 그대로 학위라는걸 30대 중반이 넘어서 받은 비천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그 말로 맞는 말입니다. 그 후에 전 그 당시로는 미국에서 성공 그 단 하나의 절대 명제 하에 돈이 안 되는건 가차없이 짜르고 조립하고 M&A 라는 기업 인수 합병에 지금 이 저주 받은 곳판이라는 서브 프라임의

자산 설계라는데 발 담그면서 일반 가계 대출 수익 모델링... 거기에 환율에 따른 주가 모델링까지.

말 그대로 워렌 버핏이 말하는 그 파생 상품이라는 시합폭탄에 발을 담군 쓰레기라면 역사의 쓰레기가 저런 인간의 실체입니다. 97년 그 당시도 제 마음속에 남은 1%의 애국심이라는 것이 너무나 뻔히 월스트리트의 석양 저무는 마천루에서 티비 뉴스를 보면 너무나 뻔하고 당연하고...

그리고 같은 한국인으로써 저래서는 절대 안 될 국부 유출과 외국에게 유린 당하는 창.녀와 같은 조국의 현실이라는걸 보면서...

한국에 와서... 다 접고 단 하나의 회사라도 너무나 잘 아는 그 IMF 와 외국인 투기 자본과 그 저주 받은.... 그리고 그 저주 받은 악마의 도구라는걸 만 든 그 장본인으로써..

지금 와서는 비명과 눈물로 이.... 나라는 한 인간을 태어나게 해 준 이 나라에 사죄하고 용서를 하고 이 통한의 지금도 이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저 자신에 대해...

97년... 98년 당시 저는... CNN과 블룸버그... 일반 매체로 그 비명의 97년 IMF 라는걸 다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회사라도 살릴 수 있었음에도 그런 사실을 망각하고 모든 걸 방관자로써... 그것도 외국에서 제 3자로써 있었던 제가... 진짜 저 자신이 이 ...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저라는 한 인간을 태어나게 해 준 이 나라에 씻을 수 없는 잘못 아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수 많은 자살자들... 한강에서 시체를 건져 올린다는 말 그대로 저주 받은 6.25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라는 그 순간을 외면하고.

조국이라는 곳에 비수를 꼽은 그 외국 애들... 그 양키들이라는 애들 한 가운데 섞여서...

저는... 제 본분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찢어지는 마음의 후회와 죄스러움이라는건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사죄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 워렌 버핏이 말한 그 악마의 병기... 그 타로 카드에 그려진 사신이라 불리는 그 악마의 병기의 파괴적인 무서움과 허리케인의 무서움이라는걸 가장 잘 아는 제가 피가 터지도록.

욕을 하면서 말을 했지만 이젠 되돌릴 수가 없는 시간적인.... 너무나 당연한 예상한 결과라는 것이 이제 현실화가 되는걸 두 눈으로 이 눈 내린 요양원에서...

늙고 비루한... 이젠 얼마 안 남은 이 늙은 몸으로 보면서...

제발... 분명 피할수도 있었던.....

아니면 최소한 이 악마의 병기라는 이 글로벌 월 스트리트 미국 세계 금융 자본의 시스템이라는 틀 속에서 뻔히 어떻게 될 거라는걸 알면서 방관자로 이 촌구석 시골에서 이젠 아무 도움도 못 되는..

이 늙은이가 해 줄 말은... 오로지 이것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보다 더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었고 각자의 가정을 지키면서 가정 파괴의 수순을 밟지 않고 그 고결한 인간의 존엄성을 단지 돈이라는 그 불로 태우면 타는 그 종이 쪼가리에 파괴되는 이 실체화 되는 비극적 현실에 도와 드리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와 더불어 간곡하게 말씀 드릴 것은... 피를 토하면서 말씀드릴 것은...

나이라는 숫자에 구애 받고 속박 받으면서 자기 자신의 미래 가능성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제 인생에서 몇 번 안 되는 감명 깊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절대... 절대 미래 가치를 지금 현재 기준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이라는 것에 구애받지 마시고 개인의 미래를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저도 32살에 미국이라는 이 기회의 땅에 건너 왔습니다.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배고파서... 그리고 그 젊은 나이에 단 1%의 희망....

없어도 좋으니까...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쌀 한톨의 희망이라도 좋으니까 그 희망이라는 걸 나도 꿈꿀 수 있다면 살아갈 희망이라는 것이... 존재감이 라는 것이있지 않을까 하고 와서 샌드위치로 끼니를 연명하며 그렇게 살아 이젠 인생의 그 우여 곡절과 그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나이에 구애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이 때문에.... 단지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 안 되도 좋으니까... 단 1%... 아니면0.1%...의 희망이라도 가지시고 이 시간들을 이겨내시기 바랄 뿐입니다.

97년.....

그 당시... 전 방관자였습니다...

98년 그 당시 마천루 한 가운데에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한국의 뉴스를 보면서.....

그리고 옳지 못한 선택을 한 한명의... 부질없는 한명의 인간으로써... 그 때 조금만 더 일찍 한국에 와서 도움의 손길을 내 뻗지 못한 한 명의 노인으로써...

사죄 드립니다....

그리고 제발 미리 선제 대응으로 이 위기를 피해 가길 간절히 기도 했지만
이젠 현실이 되 버린 이 현실....

부디.... 희망이라는걸 포기하지 말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결정적인 시간에... 나 자신의 정체성의 뿌리와... 부모의 나라와... 나 자신의
영혼까지 저 버린..

역사의 죄인....

사죄드립니다... 사죄드립니다... 전 이제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
습니다....

그 시스템적 경제 순환 구조라는걸... 그걸 설계하고 악마의 병기라는걸 만들
어 내고 그 누구다 잘 이해하고 있었으면서도 외면하고 저버린 인간으로써...

백번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건... 오로지 이것 밖에 없습니다...

사죄... 사죄입니다... 그 죄스런 생각과 방관자로서의 97년을 보낸 그 저주
받은 시간을 보낸 이 나라에.

제 조국에 제 이 늙은이가 할 수 있는건... 이것뿐입니다....

지금 그 죄스러움에... 죄송합니다... 다만... 이 죄 많은 늙은이가 할 말은...
저와 같은 후회스런 저주받은 인생은 없도록 예배당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것 뿐... 그것뿐입니다... 부디... 가정과 가족들을 각자
.. 그 소중한 가치라는걸 지켜내시기를...

백번... 천번... 간절하게 기도드릴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죄스러운 마음... 씻을 길이 없어서 술을 다시 마셨습니다.

후회와 번민... 자만과 오만의 굴곡질...

자기 자신마저 속여야만 했던 그 시간들...나 자신까지 속여야만 살아 남을 수 있다는...

말 그대로의 동물적인 생존 본능이 꿈뜰대던 그 젊은 나날들의 시절들...

후회와 번민... 자만과 오만... 자기기만과 번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의 끝으로 몰아넣은 최일선에 있으면서도 방관자였던 한 비천한 늙은이의 생애 마지막 자기반성과 사죄.

전... 결과적으로는... 저 자신까지 속였던... 자기 기만이라고 불리는 삶을... 인생을 살아 왔습니다.

오로지... 성공... 전 성공이라는 그 단 두 글자에 전 악마에게 영혼까지 팔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비천하고 비루한 늙은이입니다.

이젠... 이 나라는... 재생과 희망... 재건과 생존이라는 걸 다시 일어서서...

나라를... 경제를... 망가진 이 나라를 재건할...그 시간이 다시.. 또 다시 왔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와 같은 얼마 안 남은... 비겁자이자 방관자적인 늙은이의 몫이 아니겠지요.

오늘도 눈발을 뚫으며 전 기도 드리겠습니다... 제발 돈이라는 악마의 요물과 이 저주 받은 시스템적인 악마의 금융 자본주의에..

부디... 부디 가족들이...이 불에 태우면 한 줌의 재로 밖에는 가치가 없는 이 돈이라는 것 때문에.

인간이라는... 저와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가족과 개인의... 인간의 고결함을 각자 지키실 수 있도록....

죽는 그 날까지... 사죄드리는 이 마음...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모든 인생의 업보를 등에 이고... 악마의 무간지옥을 걸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반드시... 그 어떠한 댓가를 치루더라도 반드시..

반드시 한국 경제는 재건되어야 합니다.

이건 거론할 가치가 없는 절대 명제겠지요... 지금 이 나라... 이 불쌍하고... 안타깝고... 애증과 애욕이 교차하는 이 나라..

이 나라 경제는 반드시 부활해야 합니다.

포기 하고 자포자기 하기에는 이 나라는... 너무나 안타깝고... 지금도 박스를 주으면서... 아니면 가스비가 밀려서 추위와 굶주림의 공포 속에서 사는 노인들과 젊은 애 아빠들... 애 엄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다... 지금 이 나라에서 최상위.... 2%가 말하는 예전 말 그대로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못한다는 그 말로 치부하기에는...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다 끌고.. 데리고 가야 할 이 나라의 국민들이고 우리 이웃의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는 아직은.... 아직은 포기라는 단어는 너무나 사치스러운 단어가 지금의 우리 현실입니다.

다만...

시간에 대한 잘못된 선택에 대한 그 결과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대자연과 인간 세상사의 당연한 순리.

이제 시간적 선택에 대한 결과론적인 대가.... 대가라는걸 치를 시간이 왔을 뿐입니다...

다만... 저는 그로 인한 그 고통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 왜냐하면 그 추위와 배고픔이라는 그 뼈에 새겨지는 가난의 공포라는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겨울... 창문으로 매서운... 살을 도려내는 듯한 추위... 굶주림... 도저히 잠이 안 오는... 잘 수가 없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밝아 오는....

그 기분과 심정이라는걸 이해하는... 단지 소설책에서 보는 활자로써의 감정적인 체험이 아닌...

실제로 경험적인 그 생각조차 하기 싫은 가난의 공포와 뼈에 새겨지는 추위와 굶주림의 공포라는걸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 시작의 스타트에 이제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제발 그 희망의... 사람이 사람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지막....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 속여야 할 정도의 그 비참하고 참담함으로부터 빠져나와.....

사람으로써의 존귀함과 고결함을 단지 종이와 잉크로 아로 새겨진 돈이라는 ... 그 저주받은 쓰레기로부터 지키시길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적습니다.

술을 마시고 쓴 늙은이의 자기 푸념입니다....

부디.... 부디....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사죄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로 죄송합니다.... 다시 말해도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말이 없습니다.

<09년01월05일>